

엄질러진 소스

1

오픈 소스(Open Source)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스 코드나 설계를 누구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 보통 소스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말고도 개발 과정이나 설계도가 공개되는 경우 하드웨어에도 오픈 소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글꼴과 같은 데이터에도 오픈 소스 개발 모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오픈 소스를 채택했다고 해서 무료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유료 프로그램으로 판매도 가능하다.

단순히 소스를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2차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나아가 조건 없이 상업적 용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공개만 하고 2차 창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보통 '오픈 소스'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가 공개(open)된 소프트웨어이다. 대부분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웨어(freeware)와 헛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비슷하지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리웨어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단순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소스 코드를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상용 또는 프리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버그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모르니 수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해도 그것

을 곧바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도 없다.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어셈블리어 수준에서 뜯어고칠 수는 있으나 소스 코드가 공개된 것보다 몇백 배는 어렵기도 하고, 저작권 같은 문제가 얽히고 설키기에 시도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 경우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수정하거나 개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발하던 프리웨어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개발이 중지되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개발사에서 이를 이어받아서 새로이 개선해 나가면서 개발이 지속된다. 그래서 개발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개발 툴 및 시스템, 네트워크 분야에는 웬만한 클로즈드 소스 상용 소프트웨어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고품질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넘쳐난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분야에선 말 그대로 취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이를 마음껏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에 필요한 방향으로 최적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용자보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강세를 보인다. 서버 운영 체제에서 리눅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소프트웨어가 처음 태동하던 시기에 프로그래밍은 해커와 연구자들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영리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축이 되었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려고 할 때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로 복제가 아주 아주 쉽다는 것이었다.

초기 영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절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보호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사용해서 법적으로 소스 코드를 보호했다. 소스 코드에는 권한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 접근할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해커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은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업들은 소유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커들 중 한명인 리처드 스톨먼은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을 설립했다. 그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 배포할 수 있게 하는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라이선스를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오픈 소스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난다. 라이너스 토발즈(Linus Torvalds)라는 프로그래머가 나타나서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커널(운영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어 모듈)을 GPL 라이선스로 공개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리눅스(Linux)다.

토발즈가 리눅스를 처음 공개했을 때는 누구도 리눅스가 역대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만해도 오픈 소스는 소수의 해커들만이 참여하는 마이

너한 문화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오픈 소스라도 핵심 개발자 집단이 개발 과정을 독점하고, 완성도가 있다고 판단된 후에 소스를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런데 토발즈는 누구나 소스를 읽은 후 수정한 코드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수정한 코드가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기여자(contributor)가 되어 다음 버전에 이름이 박혔다. 이 시스템이 묘한 과시욕을 충족시켰고, 개발자들은 돈을 받지 않고도 커널 버그 수정과 기능 추가에 매달렸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은 리눅스를 점점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갔다. 몇 십년이 지난 지금 리눅스는 서버와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가 되었다. 전세계 수억대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OS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다.

[중략]

수렵 채집 시대 이후로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였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왔다. 그 고민의 결과로 현대 사회의 많은 제도들이 생겨났다. 자본주의도 그 중 하나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협력 매커니즘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 개인과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한다. 대형화된 조직은 CEO, 관리자, 노동자로 구성된 수직적 계층 구조를 통해 운영된다.

오픈 소스의 성공이 흥미로운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교리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오픈 소스의 원칙은 개방, 참여, 공유다.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도 없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구성원의 참여에 의존한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절대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모델이다.

[중략]

오픈 소스의 방식과 기술을 정치에도 적용해볼 수는 없을까? 오픈 소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이 코드일 뿐 ‘협력에 기반한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와 본질적으로 같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결국 법이라는 사회적 ‘소스 코드’를 만드는 개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 체제도 오픈 소스의 방식과 기술을 사용해서 더 발전할 순 없을까?

아르헨티나 활동가 Pia Mancini는 민주주의가 현대의 정보 기술에 맞게 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참여’가 너무 어렵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몇 년에 한번 있는 투표뿐이다. 아니면 정치에 입문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주어진다. 참여의 대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참여라는 권리는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돈을 희생하고 거리로 몰려나와서 시위를 하기까지 한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Pia는 Democracy OS(Open Source)를 만들었다. Democracy OS는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내놓고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Democracy OS팀은 처음에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정당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제공하면 시민들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다. Pia는 실패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고 말한다. 기술이 불가능했던 게 아니라 그 어떤 정당도 자신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Pia의 팀은 대담한 도전을 한다. 직접 당을 창당한 것이다. 이름은 'El Partido de la Red(Internet party)'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당의 후보들이 당선되면 Democracy OS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선거에서 1.2%를 득표했다. 비록 의석을 얻진 못했지만, 많은 관심을 받기에는 충분한 표였다. 결국 국회는 새로운 정부 프로젝트 2개를 Democracy OS에 공개했다. 대중교통과 유희 토지 사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프로젝트다.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만약 당신이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면, 이것이 당신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해야 하는 하나의 큰 이유이다.

오픈 소스 개발자의 경력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획득했는가' 즉,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필요로 한다. 오픈 소스에 기여한 포트폴리오가 전통적인 이력서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보충하기에는 충분하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한 모든 코드는 공개된다. 만약 당신이 기여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력에 반영된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직업 윤리와 코딩 전문지식을 보여준다.

예술가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사진 작가도 새로운 고객을 찾을 때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 프로그래밍 분야는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4

왜 자유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보다 좋은가?

몇몇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 대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가 다른 이름으로 지칭된다고 해도 여러 분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겠지만, 사용하는 이름에 따라서 의미상의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어의 사용은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왜 “오픈 소스”라는 용어의 사용이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과의 관계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은 공동체에 있어서 두 개의 정당과도 같습니다.

급진 세력은 흔히 파벌 주의로 여겨집니다. 전략상의 차이로 인해서 조직이 갈라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운동은 정반대의 양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지만, 모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부적인 프로젝트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 있어서 우리는 오픈 소스 운동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독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미의 모호성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모호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의도했던 “사용자에게 어떤 자유(自由, freedom)를 선사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의도했던 바가 아닌 “무료(無料, zero price)로 얻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자유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 설명해 놓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즉, 이 문제는 결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호성을 최대한 없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영어에서의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의미의 용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는 한국어, 일본어 등 몇몇 언어들만 명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된 모든 용어들 역시의미상의 문제를 갖고 있거나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은 “무료”라는 단지 한가지 의미 뿐입니다. 그러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용어 자체에 하나의 의미만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흡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한 종류입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명확한 의미는 “소스 코드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의미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즉,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만, 그 뿐만 아니라 Xv와 이전의 Qt와 같은 독점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오픈 소스”의 정확한 의미는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와 다릅니다. (“오픈소스”의 “공식적인” 정의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종종 “오픈 소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오픈 소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담고 있는 문서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오픈 소스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부분적인 효과만을 가집니다. 우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무료라는 뜻보다는 더 중요한 “근본적인 자유”의 뜻을 의도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오픈 소스의 경우에는, “오픈 소스”라는 말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중략]

자유 의 두려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주된 논거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자유, 윤리적인 주제, 책임감 그리고 편의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보다 깊은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주제를 고려하는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멈추면 사회가 더욱 나아질거라고 여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수 년전에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불편한 반응에 주목하였으며, 그 중 몇몇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리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특정한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픈 소스”라는 용어는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오히려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이러한 사용자들은 몇가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독점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회사들이 것처럼 유혹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용자들이 어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들이 자유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본연의 목적인 자유의 가치를 배웠기를 바라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해야만 합니다. 사업상 어느 정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에 유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자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충분히 “침묵”하고 있지만,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업의 목적에 더욱 적합한” 부분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배포자들이 특히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몇몇 GNU/Linux 운영체제 배포판들은 자유로운 기본 시스템 위에 독점 패키지들을 추가한 뒤에, 사용자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편리한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편리한 것이라기 보다 자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자유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Qt와 같이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부분적으로만 자유로운 운영체제 배포판들이 시장 창출을 위해서 대중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라는 말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중략]

“오픈 소스”에 대한 오해

오픈 소스의 정의는 충분히 명확해서 전형적인 상용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픈 소스 기업”이라는 말은 특정한 회사의 제품이 자유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회사들은 오픈 소스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8년 8월에 “오픈 소스 개발자의 날” 모임에 참석한 여러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그들의 작업 결과물 중 일부만을 자유 소프트웨어(또는 오픈 소스)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업 목표는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팔 수 있는 독점적인 부가 상품(소프트웨어 또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의 얼마만큼은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기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사업을 공동체 사업의 부분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들은 그들의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위해서 – 그것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오픈 소스”라는 유리한 보증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 소프트웨어와 약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몇개의 자유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한 회사의 설립자는 공동체에서 지지하는 만큼만 최소한으로 자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중략]

이러한 교묘한 술책이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행해졌다면 그만큼 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그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는 이상주의와의 관련성 때문에 그들이 이용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픈 소스”라는 용어는 그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1998년 말, 흔히 “리눅스”라는 말로 불리우는 운영체제를 위해 열린 무역 박람회에서 특히 주목 받았던 연설자는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회사가 리눅스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초청되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의미하는 “지원”은 리눅스 기반에서 운영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는 형태였습니다. 다른 말로하면 우리 공동체를 그들의 시장으로서는 이용하지만, 공헌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제품을 오픈 소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개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오픈 소스 형태를 도입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고객 지원단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있다면, 그들은 고객을 위해 버그를 고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적지 않았으므로 이 인용문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요지는 맞습니다.)

[중략]

그는 “오픈 소스”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요점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직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게 하여 좀 더 빠르고 나은 개발을 도울 수 있게 한다는 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자는 이러한 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그러한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오픈 소스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그의 기업 안에서만 수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오픈 소스”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요점은 그것이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후략]

출처 :

1] 나무위키 >> 오픈 소스

<https://namu.wiki/w/%EC%98%A4%ED%94%88%20%EC%86%8C%EC%8A%A4?from=%EC%98%A4%ED%94%88%EC%86%8C%EC%8A%A4>

2] 오픈 소스는 어떻게 대세가 되었을까?

by 송범근, 2017

<https://brunch.co.kr/@bumgeunsong/15>

3] Why Do People Contribute to Open Source Projects?

by Joel Lee, 2015

<https://www.makeuseof.com/tag/people-contribute-open-source-projects/>

4] Why Open Source Misses the Point of Free Software

by Richard Stallman, 2001

<https://www.gnu.org/philosophy/free-software-for-freedom.html>